

투데이 칼럼

누군가 보거나 듣고 있다면

1998~2001년 전주와 남원 간 국도(17번 국도)에서 매년 34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7명이 사망하고 590여명이 부상을 입어 죽음의 도로라 했다. 급기야 전북경찰청은 사고를 줄이기위해 매일 수십명의 경찰과 의경을 동원, 55km 전구간에 배치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를 계속할 수 없는 한계에 달했다. 이 구간이 획기적으로 사고와 사망자가 줄어든 이유는 두가지, 먼저는 10여개에 달하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강철 중앙분리대였다. 이로써 사고와 사망자가 1/3이하로 크게 줄었다. 요즘 전국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시내, 특히 학교나 마을앞 도로에는 필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고속도로와 산업도로에는 일정구간(수키로 미터) 규정속도를 유지케 하는 구간단속 카메라가 늘고 있다. 작년에 가 본 미국에도 무인단속카메라가 등장했다. 교통량 정체라



홍민기 수필가

는 불안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이는 노선 확장과 산업도로 설치확대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율 감소에 큰 몫을 차지하는 방범용 CCTV. 이제 뺑소니차는 물론 범죄 후차를 이용, 도주하는 경우 서버에 도주차 번호를 입력, 전국도로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차가 지나치는 경우 경보가 뜨고, 차의 이동패적이 서버에 나타나 추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뺑소니범 검거율은 90%, 일반범죄 검거율도 79.8% 이상이다.

자신의 범행이 누군가의 눈과 귀에 의해 목격, 감시되거나 머지않아 검거되게 된다면 누가 범죄를 할 것인가? 이런 감시와 고발, 억제, 역제의 요소가 모든 권력의 부정과 비리, 횡포에 작용하게 되면 어떠한가? 우리사회에는 정치인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신변만으로 이 역할을 자임, 헌신하는 사람과 단체가 많이 있다. 뉴스타파, 경실련,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여성의 전화, 이주노동자복지회, 녹색연합, 소비자교발센터 등이 있고 개인으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다스레이다' 등이 수백만의

지지를 받으며 권력부정의 감시비판을 하고 있는데 내란 때는 계엄군의 체포대상이 되기도 했다. 독재권력 정권이나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얼마나 미워할까? 그들이 아니라도 관심없는 사람도 이들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 이들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기에 감추어 지거나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는 것이다. 돈이나 지위를 얻으려도 얹으며 오히려 권력에 의해 억울한 욕살이도 마다않는 사람들! 이들의 존재는 현대사회에서 애국자와 같다. 이제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평화, 안정을 위해 권력의 부정, 사회의 범죄, 무질서를 감시, 비판, 고발하는 생각을 누구나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누가 안보거나 못 들으며 모를 것이다'는 생각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정과 비리, 그러나 시간의 차이만 있을뿐 날날히 밝혀진다는 것이 진리이다. 달라지는 세상, 더욱 건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한다.

독자제언

‘항상 국민들 곁에 있는 경찰관기동대’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은색 신체보호복을 입고 커다란 방패를 들고 차가운 표정으로 집회·시위 관리 및 차단하는 일단을 하는 경찰관이 기동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경찰 경험은 적은 20~30대 젊은 경찰관으로 대부분 구성되고 집회 주축 성향에 따라 긴장하여 다소 경직된 얼굴로 국민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현장이 아닌 국민이 절실히 필요한 곳, 그 곁에서는 친절함 미소와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관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와 사회적약자(치매노인·장애인 등) 실종 수색 재난현장 통제 및 피해복구, 주요 범죄 발생·우발지역 순찰,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여름철 자연재난(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내 가족의 피해라 생각하며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찰관이 경찰관기동대 소속 경찰관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한 곳, 그 현장의 여러분 곁에는 슬픔은 함께 슬퍼하고 걱정은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공감하는 저희 경찰관기동대가 있을 것입니다. 구인회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공습에 오염하는 키이우 주민들



1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이 오염하고 있다.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습해 최소 20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소득 대체율 문제

소득대체율(所得代替率)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소득 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다. 노인빈곤 개선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노인빈곤 상황 개선을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은 유럽 8개 국가보다 낮다. 한국의 노령·유족 관련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적 연금 순 대체율은 가장 높은 네덜란드(89.2%)에서 가

장 낮은 독일(52.9%)까지 편차가 크지만 모든 나라에서 50%를 웃돌았다. 반면 한국의 순 대체율은 36.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노인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단독 가구는 33.8%, 부부가구는 27.7%다. 반면 유럽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에서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 소득의 약 70~80%를 해당 급여로 충당하고 있다.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 강화, 기여 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3회 전미회전

제43회 '전미회전(全美會展)'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북도 예술회관 1층 기스라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북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화폭으로 옮겼다는 평을 받는다. 참여 작가는 모두 48명이다. 'Big Bang'이라는 작품을 출품한 원로작가 최현 회장 등을 비롯하여, 수채화와 유화를 주로 그리는 전북을 대표하는 구상 작가 등이 참여했다. 작가는 오로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표현한다. 작가의 작품에는 작가만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시대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다. 전미회는 전 북지역 구상계열의 작가들이 오랫동안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왔다. 급변하는 변화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미회는 창립 이후 탄탄하고 깊이 있는 구상작품을 꾸준히 선보

여 왔다. 원로부터 중견,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했다. 지역사회와 동행해온 전미회는 전북 서양화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했다. 전미회는 1980년 창립 전부터 43년간 술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중 미술 교류전(4회), 불우이웃돕기 전 및 창립15주년 기념전(KBS 전주방송국 후원)(12회), 전북 문화재 테마 기획전(27회), 전미회 30주년 기념 전우회 초대 합동전(30회), 전북도립미술관 서물관(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35회), 순창육천골미술관 초대 전미회전(36회), 전북도청 기획전시실 전미회전(제38회) 등이 있다. 이번 전시가 관람객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화우(畫友)에게는 창작 영감을 전하기 바란다. 앞으로 전미회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